

2016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6. 1. 7.(목) / 등록금심의위원회

□ 회의개요

- 일시: 2016. 1. 7.(목) 16:00~17:10
- 장소: 본부동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7명
 - 당연직: 교학처장(위원장), 교학제2부처장(부위원장), 총무과장
 - 위촉직: 학부모대표(기성회장),
학생대표 3명(총학생회장, 정책인권국장, 미술원 학생회장)
- ※ 간사: 총무과 서무계장, 배석: 총무과 담당자 2명
- 심의안건: 201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전학년도 대비 동결안)

□ 주요 회의내용

- 위원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재적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위원장이 회의를 개회를 선언함. [회의개시 시각 16:06]
- (간사) 위원소개와 등록금 심의안(동결안)에 대한 심의자료를 설명함.
- (위원장) 심의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학부모대표) 반값 등록금 정책의 내용, 국가 지원금 확대 노력 방안,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문제, 전문사 과정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담당 주무관) 반값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인상 억제, 장학금 확대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지원금은 특히 금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할 예정.
- (부위원장) 일부 장학금은 학생의 소득 수준 8분위까지 생활형편을 감안하여 혜택을 주고 있음.
- (위원장) 우리학교의 전문사 과정이 타 대학과 다른 구조적 문제 등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음.

(학생대표) 금년에 신규로 확보한 국가지원금 사업은 무엇인지.

(담당 주무관) 장편영화 제작, 레지던시 사업, 객원교수 확충, 학교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34억을 확보하였음.

(학생대표) 신규 사업 예산 확보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담당 주무관) 각 원이나 부서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안을 만들고 예산 설명을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 함.

(총무과장) 예산은 각 부처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증액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교수님이 직접 기재부, 국회 등 설득하기도 함.

(학생대표) 고려대는 성적에 따른 장학금을 생활형편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학교도 제도 변화가 있는지.

(위원장) 장학금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 가니까 변화는 가능할 것이고 의견을 모아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학생대표) 등록금 인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담당 주무관) 대학회계 자체수입금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고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지원금 확보 노력에도 인하 여력이 적음.

(학생대표) 향후 등록금 변화 시 학생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학부모대표) 등록금 정책은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부 소속 기관으로서 학교의 임의대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34억을 국고를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으로 장학금 제도 개선 등을 면밀히 해서 학생의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함.

- 토론을 마친 후, 위원 모두가 투표한 결과 참석위원 7명(재적위원 8명) 중 6명이 동의하고 1명이 부동의 하여 동의자가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었으므로 위원장은 심의안 가결을 선포함. [회의종료 시각 17:03]

□ 회의결과

- 한국예술종합학교 2016학년도 등록금은 전학년도 대비 동결(안)으로 가결